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자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연방정부 지표 없지만 일자리 성장 둔화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CEO, "미 경제 속도 붙는다"
- Bloomberg: 뉴욕 연준 총재, "대차 대조표 정책이 비전통적인 정책 아니다"
- Bloomberg: 지난주 신규 실업청구건 늘어...22만 4천 건

[주택]

- YahooFinance: 미 모기지율 2주 연속 상승...재융자 수요 약화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주간 급락 예상...OPEC+ 공급 회의 앞두고

[인공지능]

- WSJ: 고용 약화에 숨겨진 생산성 회복 조짐...AI가 그 이유일까?
- Bloomberg: 베조스, "AI 투자 붉은 생산적인 거품"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월마트 지원 기업 OnePay, 자사 बैं킹 앱에 암호화폐 도입
- CNBC: 디지털 가격표로 식료품 쇼핑의 미래가 바뀐다

[미국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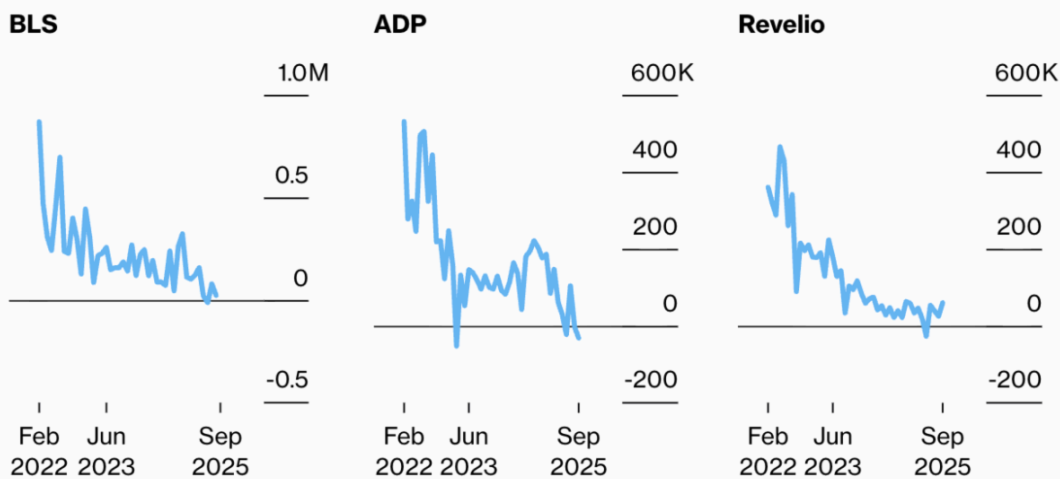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Job Growth Is Slowing Even Without Government Data to Show It

연방정부 지표 없지만 일자리 성장 둔화

- 오늘 금요일 발표되어야 할 연방정부 일자리 보고서가 없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 일자리 성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어제 ADP 발표에 따르면 고용도 해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관련 조사 민간기업 Revelio Labs는 9월에 6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. 이 기관은 고용자 전체의 3분의 2를 망라해 미 전역 인력중에 1억 개 일자리 프로파일을 조사해 얻은 수치이다.
- 이 회사는 자사의 모델을 이용해 정부지표(연방노동국) 지표를 기준으로 9월에 3만 8천개의 일자리가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한마디로 미 일자리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취약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다.

US Hiring Has Slowed, No Matter the Source

Economists estimated BLS report to show 53,000 jobs added last month



Source: Bloomberg, Bureau of Labor Statistics, ADP Research, Revelio Labs

Note: Month-over-month employment changes, seasonally adjusted. ADP only measures private payrolls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Goldman's Solomon Expects US Economy, Deals to Accelerate

골드만삭스 CEO, “미 경제 속도 붙는다”

- 골드만삭스 CEO인 David Solomon는 기술투자와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경제 진작책이 노동 시장 둔화와 지정학적인 불투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2026년도로 접어들면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- 정부 지출과 모든 AI 인프라로 인해 관세와 일자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는 것.
- 그는 증시가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기술주 중심을 장기적인 랠리를 감안하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.
-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Fed's Use of Balance Sheet Wasn't Unconventional, Says New York Fed's Williams

뉴욕 연준 총재, “대차 대조표 정책이 비전통적인 정책 아니다”

-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s는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사고 파는 이른바 대차대조표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을 조정하려는 것을 비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반박했다.
- 그는 사람들이 연준의 금융 정책을 단지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인식하는데, 이는 좁은 방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“금리 조정 이외의 방식을 사용하면 비전

통적인 방식이라고 의심한다”고 말했다.

- 그는 단기 금리가 낮을때 자산 매매같은 방식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를 긴 급 처방과 위기 대응정책으로만 본다고 비판했다. 이같은 자산 매매와 같은 대차대조 표 방식이 오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경제 연구들을 인용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Edge Up to 224,000 in Goldman Analysis

지난주 신규 실업청구건 늘어...22만 4천 건

-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따르면, 지난주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9월 27일에 끝나는 주에 신규 실업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그 전주 정부 발표 21만8천건 보다 한주 새 증가했다. 골드만삭스는 연방 노동부의 사전에 발표된 계절 요인들을 감안했다.
- 골드만삭스는 또한 전체 실업 청구건수는 1백91만건으로 그 전 주의 1백93만 건보다 약간 줄었다고 발표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YahooFinance: Mortgage rates rise for second straight week, sapping refinancing demand

미 모기지율 2주 연속 상승...재융자 수요 약화

- 미국의 모기지율이 2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나, 이는 여전히 올해 최저 수준에 가까운 수치이다.
- 30년 고정금리 평균 모기지율은 6.34%로, 전주 6.3%보다 상승했다. 15년 고정금리 평균 모기지율은 5.49%에서 5.55%로 상승했다.
-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모기지율이 점차 상승했으나, 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모기지율 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일부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된 상태이다.
- 또한,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21% 감소했다.
- 모기지은행(MBA) CEO Bob Broeksmit은 이에 관해 “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구매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나, 주택 구매력 저하로 인해 주택 판매는 저조하다”고 전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Set for Steep Weekly Loss Before Key OPEC+ Meeting on Supp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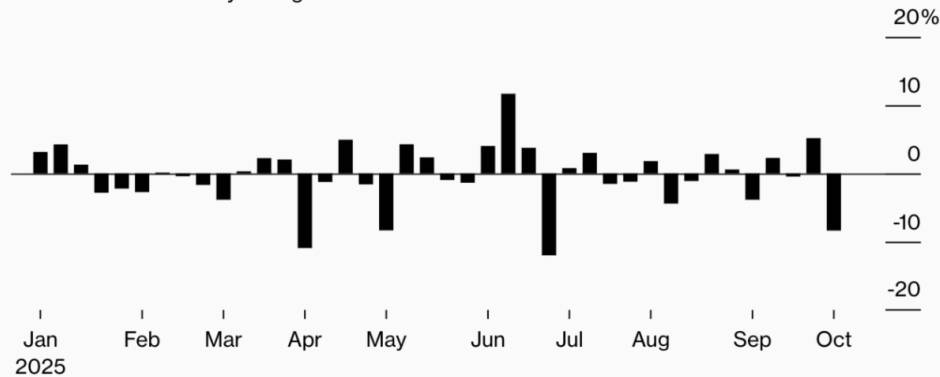
유가 주간 급락 예상...OPEC+ 공급 회의 앞두고

- 이번 주말 OPEC+가 공급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유가가 6월 말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- 오늘 금요일 브렌트유 선물가는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배럴당 65불 아래에서 거래 중이며 주간 기준으로 약 8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OPEC+이 추가 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난 4일간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.
- 또한, 트럼프 행정부의 이라크 북부에서 원유 수출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미국 정부 섯다운은 하락세를 더욱 심화시켰다.

Oil Set for Big Weekly Decline Before OPEC+ Meeting

Expectations for a global surplus weighing on prices

■ Brent futures weekly change



Source: ICE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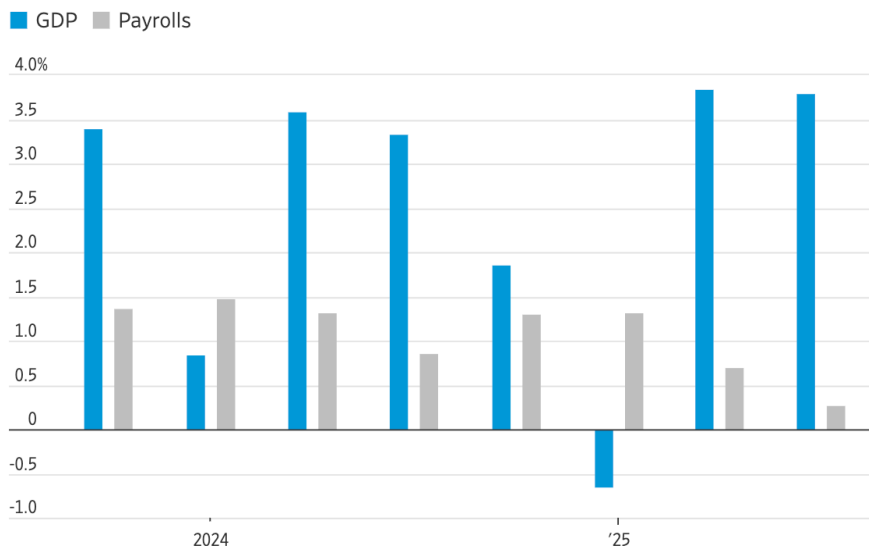
[인공지능]

WSJ: Behind Job Weakness Are Hints of a Productivity Revival. Is AI the Reason?

고용 약화에 숨겨진 생산성 회복 조짐...AI가 그 이유일까?

- 8월까지 3개월간 고용 및 근로 시간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, GDP는 3분기에 무려 연간 3.8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.
- GDP와 고용이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우는 이례적인데, 1) 지난 몇 달간의 GDP 데이터와 고용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수 있거나, 2) GDP 성장률 둔화 혹은 일자리 증가를 통해 해소 될 수 있거나, 3) 생산성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.
- 근무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연간 약 3.5% 성장했음을 의미하는데, 이는 견고한 속도이다.
- 생산성은 지난 2년간 연평균 약 2% 증가했고, 이는 팬데믹 이전 10년간 지속되었던 1~1.5%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다.
- 이는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구현된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, 아직 AI가 경제 총 생산성을 높일 만큼 충분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.
-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은 AI가 상당수의 작업을 자동화한다면 그에 따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,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AI가 생산성 증가율을 연간 0.5~1.5%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.

Quarterly annualized growth in GDP vs. payrolls



Note: Assumes payrolls rose 50,000 in September 2025, the Wall Street consensus, and GDP rose 3.8% annualized in the third quarter, th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's GDPNow estimate. Doesn't reflect expected downward revisions to 2024 payrolls.

Sources: Commerce Department (GDP), Labor Department (payrolls)

WSJ 기사

Bloomberg: Bezos Says AI Spending Boom Is a Bubble That Will Pay Off 베조스 “AI 투자 붐은 생산적인 거품”

- 아마존 회장 Jeff Bezos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‘산업 버블’과 비슷해 투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회를 나은 쪽으로도 발전시킨다고 말했다.
- 그는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열기속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.
-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AI 발명품들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같은 혜택은 엄청난 것이라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Walmart-backed fintech OnePay is bringing crypto to its banking app, sources say

월마트 지원 기업 OnePay, 자사 बैं킹 앱에 암호화폐 도입

- 월마트가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 OnePay가 곧 자사 모바일 बैं킹 앱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이들은 미국 내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체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왔는데, 이에는 고수익 저축 계좌,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, 선불 대출, 이동통신 요금제 등이 포함된다.

-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암호화폐는 꾸준히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, Morgan Stanley도 암호화폐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.
- 한편, OnePay 앱은 월마트 매장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결제 과정에 통합되어있어, 매주 월마트에서 쇼핑하는 1억 5천만 명의 미국인에 접근할 수 있다.

CNBC 기사

CNBC: How digital price tags could change the future of grocery shopping

디지털 가격표로 식료품 쇼핑의 미래가 바뀐다

- 미국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기존의 종이 가격표를 대신하여 디지털 화면을 띄우는 전자 라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.
- 월마트는 2026년까지 2,300개 매장에 전자라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, 이를 통해 직원들이 모바일 앱을 사용해 가격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. 이틀씩 걸렸던 가격 변경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자 라벨을 사용할 시 식료품점이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.
- 미국의 식료품점 Kroger은 이에 관해 “가격 급등은 일어나지 않을 일”이라고 밝혔으며, 오히려 쉽게 상하는 품목 혹은 계절 상품과 같이 더 빨리 판매 되어야하는 품목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